美國의 '下位階級' (Underclass) 論爭

李 廷 雨

이 논문은 최근 미국에서 치열히 전개되고 있는 '下位階級' (underclass) 논쟁을 정리하고, 평가한 글이다. 미국 경제는 현재 유례없는 호황을 구가하고 있으나 그 裏面에는 貧富隔差의 심화, 대도시의 빈곤, 실업, 마약, 폭력, 범죄의 만연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있음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서 미국 경제의 構造轉換을 들 수 있으나 사회경제 구조의 문제 이외에 미국의 복지정책, 문화, 인간의 심리와 대도 등 여러 측면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새로운 사회병리 현상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이 글은 하위계급의 개념 정의, 특징, 발생 원인, 규모와 구성, 새로운 연구 동향 등을 소개하고 있다

1.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최근 미국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下位階級(underclass)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데 있다.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한편에는 빌 게이츠와 같은 억만장자가 나타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최하층 빈민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露宿者들(the homeless)이 적지 않은 숫자이고, 대도시의 '시내 빈민가' (inner cities)[1]에는 실직한 대규모의 하위계급이란 존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빈곤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오래 된 문제이지만 하위계급은 최근에 와서 처음으로 나타난 문제이다. 하위계급은 새로운 현상이면서 동시에 대단히 복잡하고 심지어는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의 수많은 대도시에서는 하위계급의 등장으로 인해 전례 없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서 1992년 봄에 발생한 로스엔젤레스 폭동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로드니 킹(Rodney King)이란 흑인 청년을 무자비하게 구타한 백인 경찰들의 무죄방면을 보고 흑인들의 분노가 폭발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흑인들은 화풀이 대상으로 평소 감정이

(1) inner cities는 대도시(MSAs: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s) 안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중심지역으로서 우리말로는 '市內' 또는 '都心'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Mills and Lubuele(1997, p. 727)) 그보다 의미를 좁힌 語法인 대도시의 '市內 貧民街'로 번역될 수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후자로 쓰기로 한다.

쌓였던 한국인을 선택했고, 그 결과 수많은 한국인 가게가 습격을 받아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남중부 로스엔젤레스는 이 도시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이다. 성인 1인당 평균소득은 연 1만 달러에 불과하며, 이 지역의 가구 중 30%는 빈곤선 이하에 속한다〔Emory(1993, p. 54)〕. 이 사건의 성격을 검토해보면 흑백간의 인종차별과 한국인과 흑인 사이의 갈등도 물론 작용했지만 그 동안 잠재되어 있던 도시 하위계급 문제가 폭발적으로 나타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위계급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과거에 통상적으로 써왔던 빈곤 대책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별로 약효가 듣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하위계급 문제는 아주 다면적이고 복잡하여 기존의 일반적인 사회정책 처방으로는 좀처럼 치유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병리 현상이다. 현재 하위계급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지만 반드시 미국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미국과 비슷한 자유주의적 정책 노선을 펴온 영국에서도 최근 하위계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이 문제를 그저 강 건너 불 보듯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하위계급의 개념 정의, 발생 배경, 특징, 규모, 그리고 개념의 확대 가능성과 최근의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둘러 싼 논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하위계급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최근 IMF 사태 이후 실업 및 빈곤 문제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어서 장래에 대해서는 그다지 장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영미의 하위계급 문제를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 정도로 무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도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상당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下位階級의 槪念

2.1. 下位階級 槪念의 登場과 展開

下位階級(underclass)이란 말은 최근 미국에서는 거의 유행어가 되다시피 하고 있으나 사실 그렇게 오래 전부터 써온 말은 아니다. 이 용어는 논자에 따라 순수하게 경제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회적 행동양식에 초점을 맞추어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원래 階級(Class)이란 개념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것인데 반해 하위계급은 사회적 해체 현상을 관찰한 데서 유도되어 나온 다분히 주관적, 비수량적 개념이라 할 수 있고, 상류층, 중산층 또는 노동자계급과 구별되는 하나의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다.

하위계급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스웨덴의 경제학자 뮈르달(Gunnar Myrdal)의 저서 『豊饒에의 挑戰』(1962)이란 책에서였다. 뮈르달은 하위계급의 개념을 순수히 경제적인 개념, 즉 탈공업화로 인해 失業 또는 불완전고용의 위험에 빠진 집단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였다. 그는 경제구조를 개혁하여 한계적 상황에 빠진 집단을 구제하는 데 관심이 있었고, 피해를 입은 집단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1970년대말 이후에 오면서 이 용어의 정의는 아주 다양해졌다. 여전히 실업과 불완전고용이 이 개념의 중요한 특징으로 되어 있었지만 일부 사회과학자들은 하위계급이라는 용어를 실업보다는 지속적이고 심각한 빈곤에 초점을 맞추어 사용하기 시작했다.

하위계급이란 말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주간지 *Time*(1977. 8. 29)에서 특집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나서부터였다. 이 잡지에서는 하위계급이 대부분 흑인이며, 역사적인 차별의 희생자로서 사회의 밑바닥을 전전하는 희망 없는 사람들로 보았다. 그 뒤 올레타(Ken Auletta)의 책 『下位階級』(*The Underclass*, 1982)이 출판되면서 하위계급이란 말이 더욱 유행하게 되었다. 그는 대도시에서 사회적 한계상황에서 살고 있는 가공할 만한 집단의 존재를 지적하면서 이들을 하위계급으로 명명하였다.

> 현재 이 나라가 직면한 문제 중 사회의 주변에서 살면서 주요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일단의 사람들의 존재만큼 엄청난 문제는 없다. 경제의 왜곡 때문이든, 훈련과 동기 부족 때문이든, 혹은 고용주의 태도 때문이든 이들은 정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기껏해야 임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이들의 숫자는 비교적 적지만 이들은 스스로에게 그리고 사회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복지제도의 장기 수혜자이자 강력 범죄와 마약 중독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도시 황폐화의 원천이자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하다〔Auletta(1982, p. 25)〕.

올레타는 하위계급을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할 뿐 아니라 행동양식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보았다. 그들이 사회의 주류로부터 벗어나 격리되는 이유는 단순히 가난 때문만은 아니고, 그들의 일탈적, 반사회적 행동과 나쁜 습관 때문이라고 본다.

그 뒤 하위계급의 정의는 점점 다양해져서 겟토(ghetto) 지역에서 흑인 빈곤이 심화하는 현상에 대한 미국 대중의 감정적 경계와 적대감의 총화라고 보는 정의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다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가장 위험스러운 하위계급의 정의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찰스 브레이스(Charles Brace)는 하위계급을 가리켜 '貧民街에 사는 危險한 階級'(dangerous classes)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미국 백인들의 하위계급에 대한 노골적인 경계심

과 적대감을 대변하였다.

이리하여 하위계급의 정의는 처음에 쓰이던 순수한 경제적 의미를 벗어나 두 가지 새로운 요소를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인종적인 요소와 행동양식의 논의가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하위계급에서 인종적인 요소란 그들이 대부분 흑인이거나 南美係(Hispanics)라는 사실을 말한다. 하위계급 가운데 65%가 흑인, 22%가 남미계통이다. 그러므로 이들 두 집단이 미국 하위계급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위계급의 행동양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되는 것은 그들이 빈곤할 뿐 아니라 과거의 빈민들과는 달리 '도움 받을 자격이 없다' (undeserving)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하위계급이 범죄, 폭력, 마약 사용 같은 反社會的 행동에 자주 연루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하위계급은 '不名譽스러운 貧民' (the disreputable poor)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1960년대의 빈민은 대부분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빈민' (the deserving poor)이었던 데 비해 오늘날의 하위계급이 갖는 가장 특징적인 차이는 바로 이 점에 있으며 이것이 소위 말해서 '被害者들에 責任 떠넘기기' (blaming the victim) 현상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하위계급의 정의는 쓰는 사람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하위계급을 여론조사에서 이상한 대답을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하위계급은 경제적 의미 이외에 인종, 민족, 성, 고용, 지역, 가족구조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Auletta(1982), Wilson(1987)].

이 문제에 대해 초기의 중요한 책을 썼던 올레타는 하위계급이 다음의 네 가지 요소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거리의 걸렁한 범죄자들, 숙달된 지하경제 종사자들, 정부 지원정책의 소극적 피해자들, 사회의 최하층에 빠진 구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는 것이다[Auletta(1982)]. 여기에 성별과 나이를 추가하여 "하위계급은 주로 14세에서 27세 사이의 젊은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Glasgow의 개념정의도 있으며, Lemann은 하위계급을 정의하는 대신 "빈곤, 범죄, 부실한 교육, 의타심, 10대의 미혼 출산"이라는 몇 가지 특징을 열거하기도 한다[Marks(1991, p. 446)에서 재인용].

매리스(Robin Marris)는 "國家의 도움 없이는 貧困이나 飢餓에 빠질 長期的 確率이 있는 개인이나 가구"로 하위계급을 정의한다[Marris(1996, p. 13-14)]. 그는 모든 사회에는 평균 이하의 소득을 갖는 가구가 반드시 존재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최하위 계층의 소득과 경제적 복지가 평균에서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다는 데에서 하위계급 문제의 심각성을 발견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특히 두드러진 곳은 미국으로서 여기에서는 최하층의 소득이

단순히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하락했음을 매리스는 지적한다.

한편 저명한 사회학자 젱크스(Christopher Jenks)는 하위계급이란 '도움을 받을 資格이 없는 貧民' (the undeserving poor)만을 뜻하는 것으로 학계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하위계급은 저소득층이나 빈곤층과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 젱크스는 중산층에서 하류층으로 몰락한 사람이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 곤궁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면서 고된 일을 하는 빈곤층은 하위계급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젱크스는 빈곤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서 하위계급의 逸脫行爲를 강조한다. 하위계급은 대부분의 미국인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규칙을 어기기 때문에 빈곤상태에 빠진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하위계급이 사회의 主流에 참여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의 연구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이 다양한 하위계급 정의가 나왔지만 하위계급이란 용어를 학계의 새로운 개념으로 만들고, 오늘날 거의 유행어가 되도록 만드는 데 가장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을 들라면 아마 사회학자 윌슨(W.J. Wilson)이라고 보아서 틀림없을 것이다. 윌슨은 1980년대 중반에 쓴 글에서 대도시의 '市內 貧民街' (inner city)에서 무리를 이루고 있는 하위계급에 최초로 주목하였다. 그는 하위계급을 '訓練과 熟練이 결핍되어서 長期的 失業 상태에 있거나 勞動力의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들'로 정의하였다. 그의 구체적 개념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오늘날의 겟토 지역 주민은 거의 흑인 도시공동체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 인적 구성은 다양하지만 미국 직업체계의 주류에서 벗어난 가족 및 개인이 바로 그들이다. 여기에 속하는 집단은 훈련 및 숙련이 결여된 개인, 그리고 장기적 실업을 경험하거나 아예 노동력 구성원이 아닌 개인, 그리고 거리의 범죄나 그 밖의 逸脫的 행동에 종사하는 개인들, 그리고 장기적 빈곤에 빠져 있거나 복지의존 상태에 있는 가족들이다. 이들이 바로 내가 '下位階級'이라고 부르는 집단이다. 나는 下流層(lower class)이라고 하는 보다 표준적인 명칭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현실을 묘사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한다[Wilson(1987. pp. 7-8)].

그러나 하위계급을 대도시 도심의 빈민가 주민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다. 왜냐하면 숫자로 볼 때 미국 빈민은 도시보다 농촌에 더 많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 남부의 농촌에서 살고 있는 흑인들이 도시 흑인 못지 않게 높은 실업률과 경제적 곤궁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런 측면을 떠나서 하위계급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대부분 대도시의 市內 貧民街(inner city)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지금까지 나온 하위계급의 개념 정의 중 학계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것은 윌슨의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 나온 논의 중 주목받고 있는 또 하나의 개념을 소개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것은 하이츠마[Haitsma(1989)]의 定義이다. 하이츠마는 하위계급 개념을 개인의 행동에서 찾으려는 접근을 비판하면서 이 개념의 핵심을 勞動力 供給의 脆弱性(weak labor force attachment)에서 찾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하이츠마의 정의는 윌슨과 비슷하지만 거기에 덧붙여 그런 상태를 지속시키고 악화시키는 社會的 狀況(social context)이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 여기서 하이츠마가 말하는 사회적 상황이란 형편없는 학교, 일자리 정보 넷트웍의 빈약, 잠재적 취업장소와 집 사이의 먼 거리, 차별적 고용주, 탁아 시설의 미비 등을 의미한다.

하위계급을 개인의 행동이나 문화로 설명하는 것은 기껏해야 개인의 갱생 사업 정도의 정책적 함축밖에 갖지 못하는 반면 하위계급을 취약한 노동력 참가와 그것을 지속시키는 사회적 상황으로 정의하는 것은 하위계급을 하나의 독자적 사회경제적 계급으로 자리 매김할 뿐 아니라 바람직한 정책적 함축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 하이츠마의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윌슨도 상당한 호감을 표시한 바 있다.

2.2. 下位階級 槪念에 對한 批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하위계급이란 용어는 정의 자체가 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역시 문화적, 행태적 정의가 대체로 많은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뮈르달은 이 용어를 처음 순수히 경제적인 의미로서 사용하였지만 그 후에 와서 행태주의적 접근이 가미되면서 개념 자체가 많이 변질된 것이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은 이 용어가 가치 없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함축을 너무 많이 지니고 있고, 의미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오염되어 있어서 개념 자체를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Gans(1990)].

젤리(E.W. Zelley Jr.)도 하위계급이란 일종의 輕蔑的 用語(pejorative term)로서 상류층의 윤리적 판단이 가미된 것으로 보고 있다[Zelley(1987)]. 그는 이 개념이 빈곤 문제를 이해하는 데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에덜만은 1960년대의 진보적 분위기가 1970년대 이후 反轉되어 빈곤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종래의 대중적 확신이 약화되면서 빈곤은 개인적 책임의 산물이라는 그릇된 믿음이 강화되었으며, 그러한 사고방식을 대변하는 것이 하위계급이란 용어로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한다[Edelman(1987)]. 그 결과 도시빈민의 좌절감 → 사회적 고립 → 하위계급 → '피해자들에 책임 떠넘기기'로 전개되고, 결국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의 부족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하위계급이라는 용어가 너무 저널리스틱하게 사용되어 왔고 — 하위계급에 대한

문화적, 행태주의적 접근에서 특히 더 그러하였다 — 그 결과 연구자들이 객관적 입장에서 연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자체가 의문시될 뿐 아니라 공공정책의 논의에서도 중립적, 객관적 정책분석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하위계급의 개념 자체가 융통성이 대단히 커져서 사회적으로 유해하거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집단을 모두 하위계급에 포함시키는 경향조차 나타났다.

하위계급 개념에 대한 가장 통렬한 비판자는 간스[Gans(1990)]인데, 그는 다음과 같은 열 가지 근거에서 하위계급의 개념을 공격한다. 하위계급이란 용어가 갖는 첫번째 위험은 그것이 비록 전문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은근히 貧民을 가리켜 지원 받을 자격이 없는 (undeserving) 자로 묘사하면서 경멸하는 뉘앙스를 풍긴다는 점이다.

둘째로 이 용어는 反黑人이나 反히스패닉의 감정을 교묘히 은폐하고 있는 인종적 적대감을 가진 말이라는 것이다.

셋째로 용어 자체가 너무 신축적이어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1960년대에 오스카 루이스가 貧困文化의 개념을 내어놓았을 때 루이스는 빈곤문화의 특징으로 무려 65개 항목을 나열한 바 있었는데, 하위계급도 그런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다.

넷째 위험은 — 이것은 특히 위험한 것이지만 — 하위계급은 서로 이질적인 집단을 하나로 뭉뚱그리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분류가 정확하지 않고 가치판단이 가미되었을 때 그것은 빈민에게 부당한 딱지(labels)를 붙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自己實現的 豫言(self-fulfilling prophesies)처럼 한 번 이런 딱지가 붙으면 실제로 그런 부정적 결과가 나타날지도 모른다.

다섯째로 이 용어는 빈곤대책이나 다른 종류의 계획과 상충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위계급이 상이한 정책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집단을 뭉뚱그리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특히 더 그러하다. 다양한 집단에 대해 단 하나의 하위계급 대책을 세운다면 그것은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여섯째 위험은 개념이나 유행어로서의 설득력에 기인한다. 하위계급이 유행어가 될 경우에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가상적 집단이 이런 사회현상의 원인이 된다고 쉽게 믿어버릴 위험이 있다. 그들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이 하위계급에 속한 결과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 용어의 일곱째 위험은 특히 정책입안자에게 나타나기 쉬운 위험으로서 특히 '下位階級 地域'이라는 개념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들이 어떤 지역을 하위계급 지역으로 정의하게 되면 예를 들어 露宿者들을 거기로 집단 이주시킨다거나 도시재개발을 시도하는 등의 엉뚱한 정책을 세울 위험이 있다.

여덟째 위험은 윌슨(W.J. Wilson)의 '集中과 孤立의 假說'에서 파생되는 위험이다. 아래에서 보다 상세히 보겠지만 윌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흑인 동네에서 비교적 괜찮은 위치에 있는 흑인들이 교외로 빠져나감에 따라 시내에 남는 것은 가장 열악한 처지에 빠진 흑인들이므로 그들의 빈곤은 더욱 집중되고 고립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 일자리, 役割 모델(role models), 각종 기관으로부터 고립되어 더욱 처지가 나빠진다는 것이다. 이 가설이 학계 바깥에서는 거의 도그마처럼 신봉되고 있는데, 이 가설에 따라 하위계급을 중산층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을 채택할 때 따르는 문제점으로는 중산층이 좀처럼 자기 동네에 하위계급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하위계급은 중산층 동네에서 살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아홉째 위험은 하위계급의 개념 자체에 내재하는데, 그것은 하위계급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빈곤하다고 가정하면서도 그들의 이상한 행동 등 기타 요인에 관심을 돌리는 바람에 빈곤의 문제를 비껴가기 쉽다는 문제점이다. 그리하여 최근 증가한 빈곤 문제, 특히 장기적 빈곤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하위계급이란 용어가 갖는 열 번째 위험은 실제로 필요하지도 않은 용어를 새로 만들어 내는 위험이다. 뮈르달이 이 용어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는 극빈층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실에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였으나 지금의 하위계급 개념은 오히려 이와 정반대로 도움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빈민이란 의미를 갖게 되었다.

간스는 이런 열 가지 이유로 하위계급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데 반대하면서 이 용어를 폐기할 것을 주장한다. 그 대신 보수파처럼 하위계급을 가리켜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빈민을 뜻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그대로 '도움 받을 자격이 없는 빈민'이란 용어를 쓰는 것이 정치적 입장이 뚜렷할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위계급이란 용어 없이도 계속해서 장기적 실업과 빈곤을 연구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간스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는 학자로 젤리가 있다. 그도 역시 하위계급이란 개념 자체가 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으므로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 '下位階級'이란 말은 경멸적인 용어이다. 그것은 전통적 의미에서의 계급을 묘사하는 용어가 아니고 힘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에게 던지는 도덕적 판단이다. 그러므로 이 용어는 사회계층론에서 차지할 정당한 자리가 없다. '하위계급'이란 표현은 …… 빈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전혀 돕지 못할 것이며, 빈곤 문제에 대해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公共의 信念을 와해시킬 뿐이며, 우리 사회에서 궁핍을 지속시키는 제도적 힘을 무시함으로써 빈곤은 오로지 개인의 병리적 결과라는 잘못된 믿음을 강화시킬지 모른다[Zelley(1987, p. 83-84)].

구조주의자들은 하위계급이란 용어 자체가 문제가 많으므로 이 용어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위계급에 대한 연구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는 윌슨도 1990년 와싱턴에서 열린 미국 사회학회의 회장 연설에서 이 용어를 폐기하고 그 대신 '겟토 빈민' (ghetto poor)이란 용어를 쓸 것을 제안하였다고 한다[Marks(1991, p. 460)].

그러나 하위계급이란 개념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판도 만만찮다. 윌슨과 同名異人인 저명한 정치학자 윌슨(James Q. Wilso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하위계급' 이란 용어 자체의 사용을 반대하는 일부 사람이 있지만 그런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위협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왜 이 집단이 하위계급이라고 불리며, 왜 우리가 이 문제를 걱정하는가 하면 이들은 나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강도 짓을 하고, 마약을 복용하고, 자식을 팽개치며, 교육을 우습게 본다[Wilson(1992, p. 103)].

3. 下位階級의 理論

3.1. 下位階級의 發生 原因

미국에서 빈곤의 발생 원인을 보는 전통적 시각은 대체로 다음의 네 가지로 가를 수 있다. 첫째, 복지제도의 미비: 이것은 전통적 進步主義者(liberals)들의 견해로서 미국은 유럽 각국에 비해 복지정책이 미비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사회학자 마샬(T.H. Marshall)의 관점을 원용하여 이야기하자면 미국은 사회적 권리와 시민권이 골고루 발달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의 상당 부분이 사회, 정치적 주류에서 이탈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나라에서 사회, 정치적 권리가 박탈된 집단은 사회의 밑바닥에 침전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진보주의적 시각은 1960년대에는 강력한 지지를 얻었으나 1970년대 이후에 오면서 점차 설득력을 잃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1960년대 중반 이후 전개된 '偉大한 社會' (The Great Society)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에도 빈곤이 줄어들지 않았고, 청소년 빈곤과 대도시 빈민가의 빈곤이 오히려 증가한 현상은 진보주의의 설득력을 잃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다.

둘째, '貧困文化' (culture of poverty) 논의: 이것은 도시의 빈민이 갖고 있는 독특한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빈곤을 영속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빈곤문화' 논자들에 따르면 도시의 빈민들은 장기적 비전이 없고, 순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

어서 쉽게 학교를 중퇴하고, 쉽게 私生兒를 낳고, 쉽게 마약에 탐닉하게 된다는 것이다. 성인 남자들은 일하기를 싫어해서 정부의 公共扶助에 의존하거나 범죄 행위에 빠져들고, 여자들은 사생아를 낳아 기르면서 정부의 지원 — AFDC, Food Stamp 등 — 에 의존하여 생활한다는 것이다. '빈곤문화' 론은 1960년대초에 루이스(Oscar Lewis)에 의해 제시된 이래 한 때는 학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으나 그 뒤 인류학적 검증 결과 별로 지지를 얻지 못하였으며, 그 자체 너무나 정태적 개념이어서 현대의 빈곤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구나 이 개념은 사회의 '피해자들에 책임 떠넘기기' 라는 비판도 면하기 어렵다.

셋째, 정부의 歪曲된 福祉政策에서 하위계급 출현의 원인을 찾는 견해: 일단의 보수적 이론가들은 미국 정부가 추진해 온 복지정책의 부작용으로 빈곤 문제가 더 악화하고 있다고 본다. 이런 주장을 펴는 대표적 논객은 머레이(Charles Murray)다. 그는 미국 정부가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1960년대에 개시한 '偉大한 社會'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으로 인해 남성은 일하지 않고 公共扶助에 의존하여 나태한 생활을 하고 있고, 여성은 쉽사리 아이를 낳지만 결혼은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거나 그냥 동거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이런 머레이의 주장은 1980년대 이후 미국의 학계와 정치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으나 많은 학자들의 검증 결과 여러 측면에서 실증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가 강조하는 복지제도의 근로의욕 저해 효과도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 통계적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미국의 복지지출이 실질적으로 증가를 멈추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위계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점도 머레이 주장의 주요한 약점의 하나로 지적된다.

넷째, 經濟構造의 변화. 윌슨(W.J. Wilson)은 미국에서 최근 하위계급이 급증한 원인을 Time誌처럼 오랜 과거부터 내려오는 역사적인 차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최근 일어난 '경제구조의 변화' 에서 찾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윌슨은 자기의 저서 『社會의 脆弱集團』(*The Truly Disadvantaged*)(1987)에서 흑인 하위계급에 초점을 맞추면서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지역 집중 및 흑인공동체로부터의 고립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실업보다는 勞動力 供給의 脆弱性(weak attachment to the labor force)이 더 문제라고 보고 있다.

겟토의 빈곤 증가 현상에 대한 전통적 설명은 人種主義이다. 미국 진보 진영에서는 과거부터 흑인에 대한 차별과 인종적 억압이 겟토의 빈곤과 사회문제를 낳는다고 보아 왔다. 그러나 윌슨(W.J. Wilson)에 의하면 최근 겟토의 하위계급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해체 현상까지 이런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흑인 사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빈부격차 심화는 인종주의로 좀처럼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종주의적 설명의 문제점은 인종주의가 흑인 인구 중 다른 부분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현재에는 과거와 상이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Wilson(1987, pp. 10-11)].

윌슨으로서는 이런 관점이 자연스런 것이다. 왜냐하면 학설사적으로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70년대에 윌슨의 명성을 날리게 만든 『人種의 重要性은 減少하고 있다』(*The Declining Significance of Race*, 1978)라는 책에서 이미 그는 미국에서 인종 문제의 중요성은 날로 감소하고 있으며, 그 대신 중요한 것은 계급문제라고 진단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학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이 책에서 그는 흑인 가운데에서도 하류층으로 침전한 계층과 상류층으로 상승한 계층 사이에 커다란 격차가 생기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그가 하위계급의 문제를 역사적 차별에서 찾지 않고 최근 진행중인 경제구조의 변화에서 찾는 것은 자연스런 귀결로 보인다. 윌슨이 하위계급 대책으로서 인종차별을 줄이는 정책 대신 완전고용과 균형 경제성장 등 인종과 관계없는 보편적 정책을 제시하는 것도 자신의 이론구조에서 볼 때 당연한 결론이다.

국제경쟁이 심화하면서 미국에서는 과거의 獨寡占的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 부문으로 경제구조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데, 서비스 부문은 경쟁적 시장구조와 非勞組를 특징으로 한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제조업에 비해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하락하고,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숙련 수준은 높아진다. 제조업이 자리잡고 있던 대도시 시내 빈민가의 노동시장은 위축되고, 일자리는 점차 교외에 위치한 고급기술 집약적인 서비스업으로 옮겨간다.

커센만-넥커만이 시카고 노동시장을 조사하면서 인터뷰한 고용주들은 시내 빈민가에 대한 印象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흑인, 빈곤, 낮은 교육수준, 비숙련, 가치관 결여, 범죄 연루, 폭력단, 마약, 불안정한 가정"[Kirschenman and Neckerman(1991)]. 커센만-넥커만은 고용주들의 이런 인상이 자기실현적 예언과 같이 스스로 실현되는 악순환 효과를 갖게 됨을 지적하고 있다. 시내 빈민가에 사는 흑인들은 다수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므로 필연적으로 경제적 박탈을 경험하게 된다. 안정적 일자리를 갖는 성인 남자는 줄어들고, 따라서 여성의 결혼 상대도 줄어든다.

대도시의 시내 빈민가에는 저소득의 실업자, 불완전 취업자들만 남게 되고 이들은 일탈된 행동을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차례차례 교외로 이사를 가므로 시내에 남아 있는 아이들에게 장래의 비전을 제시할 '役割 모델' (role model)이 없어진다. 과거에는 한 동네에 사는 흑인 중산층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웃

의 어린이들에게 장래 목표가 될만한 좋은 모델의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떠나고 없다. 게다가 전통적 가치관을 심어줄 학교, 교회도 하나씩 문을 닫게 되고, 남는 것은 나태, 무절제, 사생아 출산, 술, 마약, 폭력, 범죄밖에 없다. 이것이 윌슨이 보는 하위계급 등장의 근본 원인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흑인 10대 및 성인들에게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20세 이상 백인의 실업률에 비해 흑인의 실업률은 보통 두 배 정도이고, 특히 10대 흑인의 실업률은 30%를 넘는 것이 보통이다. 설사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해도 하위계급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들은 운이 좋으면 교육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장래성 없는 일자리에 겨우 고용될 뿐이다. 따라서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새로 생겨난 일자리가 많이 있었지만 하위계급의 빈곤을 해결하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미국은 유럽에 비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巨大한 일자리 機械' (the great job machine)라는 별명이 붙어 있지만 일자리의 증가도 결과적으로 하위계급의 빈곤을 감소시키는 데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다.

미국 경제는 그 중심이 製造業에서 서비스업으로 바뀌는 급속한 構造 轉換을 겪고 있어서 매년 2-3백만 명이 구조적 요인으로 일자리를 잃고 있다. 특히 흑인의 고용 전망은 상당히 어둡다. 흑인 가운데 젊은이들과 낮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실업 및 불완전고용은 1970년대에 계속 증가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하지만 빈곤에서 벗어나기는 아주 어렵다. 그리하여 흑인 남자의 일자리 부족은 경제적 불안정의 주된 원인이다.

엘우드-섬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흑인 청년 실업이 겟토에 집중되어 있다면 빈곤문화론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들이 발견한 것은 흑인 청년의 고용상태가 대도시(32%), 교외(38%), 농촌(35%) 할 것 없이 큰 차이가 없으며, 백인의 고용상태(62%)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이다[Ellwood and Summers(1986, p. 101)].

피터슨도 미국경제의 구조변화가 젊은 흑인 남성의 경제적 후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Peterson(1991)]. 1973-1986년 기간에 25-29세 남성의 근로소득은 20% 하락했는데, 흑인의 경우에는 28% 하락하였고, 특히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젊은이의 경우에는 36%나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방금 위에서 본 커센만-넥커만의 연구에서도 하위계급에게 고용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들의 조사에 의하면 시카고 고용주들에게 인종은 중요한 채용기준이다. 고용주들은 흑인 남성을 "불안정, 비협조적, 不正直, 교육받지 못한" 존재로 보고 있었다. 고용주들의 마음 속에는 '흑인'과 '시내 빈민가'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양자는 下流層(lower class)과 연결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들의 연구는 인종

차별이 하위계급 등장에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위계급 발생을 설명하는 일자리 부족 가설에 대해 보수파들은 과거 그리고 최근의 해외로부터의 이민이 미국에서 성공한 사례를 들어 반박한다. 즉, 과거 해외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두 어려움을 겪었으나 열심히 일해서 결국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데 비해 현재 미국의 하위계급은 그런 의지가 없고 게으른 것이 근본 문제라는 것이다[Gilder(1981), Murray(1984), Mead(1992)]. 미드는 과거의 해외 이민들은 언어장벽이라는 추가적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였음을 지적한다. 양자의 차이를 미드는 해외 이민들은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반면, 흑인들은 이 프로그램의 혜택에 의지하는 복지의존적인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는 데 익숙해져 있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Mead(1986, 1992)].

그러나 과거의 해외 이민과 현재의 하위계급을 단순히 비교하는 보수파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의 차이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Emory(1993, pp. 46-47)]. 첫째, 과거 유럽 출신들이 미국에 이민해 들어올 때는 경기가 호황기여서 노동자가 부족한 상태였으나 1980년대는 그 반대다. 둘째, 유럽 이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흑인들에게 대한 것처럼 악의에 찬 것이 아니었다. 과거 해외 이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던 부문이 지금은 흑인들은 배제하고 있다. 셋째, 과거 이민들은 미국의 생활수준이 낮을 때 빈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 궁핍이 적었고,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밝은 미래를 전망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오늘날 게토의 흑인들은 상대적 풍요에 둘러싸여 있어서 장래 전망은 상대적으로 더욱 어둡다는 것이다.

미드와는 반대로 카사다는 흑인과 아시아 이민을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Kasarda(1989)]. 양자는 교육수준이 낮고, 도시에 집중해서 살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그런데 아시아 이민은 차별을 비롯한 각종 난점을 가족기업 형태의 자영업을 발전시킴으로써 극복한 반면 흑인은 그렇지 못하다. 아시아 이민들은 가족과 인척을 통해 자본을 동원하고, 내부시장을 발전시켜 차별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마련한 반면 흑인은 금융상의 약점과 가족 해체로 인해 기업을 일으킬 수 없다는 점이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3.2. 下位階級의 特徵

미국 도시에서의 빈곤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도시 빈곤이 가지는 함의는 과거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환경의 차이, 노동시장 상황의 차이, 공간적 차이가 그것이다.

첫째, 環境의 差異: 초기의 빈곤은 미국의 공업화와 더불어 도시에서의 非熟練 혹은 半

熟練 일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성장 및 고용기회의 확대와 공존했다고 할 수 있다. 즉, 비록 가난하였지만 주위 환경은 빈민들에게 어느 정도 희망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탈공업화,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고용기회는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일부 서비스 부문에서 새로 나타나는 일자리는 보수는 많지만 그 대신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필요로 한다. 그 밖에는 보수가 형편없는 파트타임의 비노조 일자리가 주어질 뿐이다. 그리고 公共扶助(public assistance)는 감소했으며, 흑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빈민에게 주어진 상황은 여러 모로 비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勞動市場의 상황: 흑인 중 빈민의 비율이 1960년대 이후 급격히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만성적으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의 수는 급증하였다. 그 결과 빈민 중 만성적으로 일자리가 없는 사람의 비중은 증가하였고, 이 중 흑인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종문제와 도시빈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상은 이들 문제로 오래 시달려 온 미국의 역사에서 보더라도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윌슨은 최근 미국의 산업구조가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굴뚝 産業(smoke stack industries)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변동함에 따라 흑인 남성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숙련과 산업에서 수요되는 숙련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 점을 지적한다. 소위 熟練不一致假說(skill mismatch hypothesis)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와서 특히 미국의 북동부 및 북중부의 도시에서 과거 低熟練 노동자들에게 비교적 높은 임금을 지불하던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음이 실증적으로 드러나고 있다[Kasarda(1989)].

게다가 1970년대초 이래 저숙련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절대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1980년대 이후에는 대졸 노동자 대 기타 노동자 사이의 賃金隔差, 그리고 경력의 차이에 따른 임금격차가 확대되어 왔다. 교육과 노동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정통적 人間資本論의 설득력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새로운 상황이 하위계급의 등장을 상당 부분 설명해준다.

셋째, 空間的 分布 과거에는 부자와 빈민의 거주지는 지역적으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흑인의 게토는 1차 대전 시기에 대량 이민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형성, 발전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결국 인종적 고립의 씨앗이 된 셈이다. 2차 대전 시기까지만 해도 도시인구 중 흑인의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도시에서의 빈민 및 흑인 구역의 집중, 확대는 미국의 역사상 유례가 없이 높은 정도에 달하고 있다.

빈민들의 공간적 분포의 특징과 관련하여 윌슨(W.J. Wilson)의 가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윌슨은 겟토의 하위계급은 지역적, 사회적 고립을 특징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고립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集中效果, 空間的 不一致(mismatch), 그리고 社會的 孤立이 그것이다.

집중효과는 대부분이 불이익을 받는 도시 흑인 인구의 불균형적 집중에서 온다. 현재 도시의 겟토에는 수십년 전 이 지역의 환경과는 너무나 상이한 사회적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흑인 거주지는 백인이나 남미계통보다 빈곤 지역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고, 그 비율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저숙련 흑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대도시의 시내 빈민가에서 그대로 살고 있는데, 일자리는 교외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이들 흑인들은 백인이나 교외 거주 흑인에 비해 훨씬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게다가 고속도로 건설과 도시계획이 하위계급의 고립을 더욱 심화키는 측면이 있다. 공간적 차별과 인종주의는 흑인들을 집중케 하고 고용기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럼 왜 대도시에 사는 흑인들은 일자리를 따라 교외로 이사가지 않는가? 이 의문에 대해서는 몇 가지 대답이 있다[Mills and Lubuele(1997, p. 735)]. 첫째, 대도시의 시내 빈민가에 사는 흑인은 그곳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 현재 받고 있는 정부의 보조 혜택을 받기가 쉽다는 점이 있다. 이들 중 극빈층은 교외로 이사를 가더라도 정부 지원을 받을 자격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아무래도 현재의 위치에 머무는 편이 주택보조 기타 각종 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을 것이다. 둘째 이유는 교외에서는 주거 및 고용상의 차별과 적대감이 심하다는 것이다.

맷시[Massey(1994)]는 미국 역사상 흑인만큼 오래 동안 지속적으로 住居隔離(residential segregation)를 경험한 집단은 없다고 주장한다. 아시아 이민이나 남미계도 주거격리를 겪고 있지만 흑인의 주거격리는 그보다 50% 더 높다고 한다. 맷시에 의하면 인종간 주거격리는 빈곤을 개인간, 세대간에 이전시키는 제도적 장치이며, 따라서 도시 하위계급을 영속화시키는 주요한 구조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흑인의 불평등은 미국 도시지역에서 심해지는 住居差別과 교외에서의 주거차별에 따라 교외에 거주하는 흑인의 수가 감소하면서 지속적으로 강화된다. 이는 직장과 각종 기회가 교외로 떠나버린 뒤 시내에 그대로 남아서 살고 있는 흑인의 숫자가 늘어남을 의미한다. 흑인 청소년들 사이에 학교에서의 유급 및 10대 임신에 있어서 近隣效果(neighborhood effect)는 겟토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매우 높게 나타난다. 유급생은 여자보다 남자 흑인의 경우 더 높으며, 겟토에서는 10대 임신 비율도 아주 높다.

하위계급의 공간적 집중 경향은 1970년대보다 1980년대에 와서 더욱 두드러졌다. 주거차별에 관한 연구 결과는 1990년대에 와서도 흑인에 대한 주거차별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Massey(1994)]. 공업부문에서의 고용의 감소로 도심지 흑인의 숙련과 그들에게 유용한 취업기회 사이의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이것은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흑인 실업률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준다[Wilson(1987)].

겟토의 흑인은 일자리 부족, 빈곤, 가족제도의 불안정성, 福祉 依存(welfare dependence)의 측면에서 1960년대 民權運動이 승리하던 당시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오히려 더 고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장기적인 일자리가 부족하고 중산층이 떠나기 때문에 시내 빈민가에서는 학교, 교회 등 가장 기초적인 사회조직조차 유지,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 겟토에 살던 중산층이 이탈하면서 공백이 발생하고, 이 지역의 상황은 날로 나빠진다. 그 뿐만 아니라 겟토 지역의 잔류자들에게 다양한 사회적 역기능이 발생한다. 남은 사람은 낙오자라는 自己卑下에 빠지게 되고, 술과 마약 중독 문제는 심각해진다. 1960년대에 비해 겟토 지역의 마약 남용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졌다. 여기에서는 정상적 가정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많은 젊은이들이 범죄집단을 형성하여 폭력 수준이 위험수위에 이르렀으며, 약물중독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겟토에서는 중산층 이상의 흑인들이 하나 둘 떠남에 따라 과거에 흑인들 중 의사, 변호사, 중산층 직업소유자들이 이웃에 살고 있어서 그 동네의 흑인 어린이들에게 제공해주던 역할 모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제 어린이들의 눈에 띄는 것은 주로 실업자, 범죄자들이므로 이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장차 좋은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마음을 먹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적 고립 가설이 시사하는 바는 지금이라도 좋은 일자리, 좋은 역할 모델, 인적 연결망이 성립 가능하다면 하위계급의 상황은 변화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연구로 오스터만이 보스턴 지역 노동시장에 관해 연구한 결과를 보면 1980-1987년 기간 동안 보스턴 지역에서 완전고용이 달성됨으로써 이 지역의 빈곤이 — 소수민족도 포함하여 —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Osterman(1991, p. 130)*].

집중과 고립이라는 윌슨의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해본 결과를 보면 대체로 지난 몇 십년간 흑인들 사이의 소득격차가 커져서 집중 현상이 심화되었고, 지역적으로도 고립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윌슨의 주장이 뒷받침되고 있다[Danziger and Gottschalk(1987)]. 그러나 고립 심화 가설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부가 발표하는 대도시 통계의 개념에 일관성이 없어서 생긴 결과일 뿐이라는 반론도 있다[Littman(1991)]. 한편 겟토의 흑인 중산층이 떠남에 따라 문제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윌슨의 가설에 대해서는 그것이 진정 남은 사람들의 상태 악화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상층부가 떠남에 따라 단순히 그 지역의 평균이 산술적으로 하락했음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있다

〔Danziger and Gottschalk(1987)〕.

또 하나 윌슨의 주장 중 중요한 대목은 黑人 女性家長 家口의 증가 현상에 대한 그의 독특한 해석이다. 윌슨은 여성가장 가구의 증가 현상에 주목하면서 이를 경제구조의 변동 → 흑인 남성의 실업률 상승 → 결혼할 만한 남성 인구의 감소 → 여성 가장의 증가로 해석한다. 즉,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진 남성이 줄어들다 보니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결혼할 만한 상대가 감소하였고, 그 결과 여성 혼자서 살거나 애를 기르는 가정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윌슨의 '結婚可能男性減少' 假說〔marriageable-male hypothesis〕은 실증 결과 그렇게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흑인의 결혼 비율이 하락한 것은 최근의 현상이 아니라 1950년대 이후 계속된 현상이며, 이 기간 동안 흑인의 고용 상태는 경기에 따라 오르내렸지만 결혼 비율 하락은 추세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Ellwood and Crane(1990)〕. 게다가 결혼 비율 하락은 저숙련, 실업의 흑인 뿐만 아니라 고숙련, 일자리를 가진 흑인에서도 동시에 나타나므로 윌슨의 가설과는 모순된다. 사실 결혼 비율 하락 현상은 흑인에만 고유한 것은 아니고, 최근에는 여러 나라, 여러 인종에 걸쳐 세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4. 下位階級의 規模와 構成

지금까지의 실증연구 결과는 미국에 하위계급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하위계급의 규모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Auletta(1982)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미국 하위계급의 정확한 규모는 얼마인가? …… 그 크기는 정의에 달려 있으며, 정의는 연구자의 가치관, 인생 경험, 정치적 견해에 달려 있다. …… 콜럼비아 대학의 인력문제 전문가 마샤 프리드만은 "지원 네트워크에서 벗어났으며, 가정이란 조직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란 좁은 정의에 입각하여 추측하기를 그 규모가 2백만 명 즉, 미국 인구의 1% 미만이라고 본다. 1966년 인류학자 오스카 루이스는 그의 책 *"La Vida"*에서 "'빈곤 문화'에 의해 패배한 사람들"이란 넓은 정의를 이용하여 이들의 규모가 미국 공식 빈민의 20%라고 추정하였다. …… 브롱크스 정신병원의 유고 모랠리스 박사는 더 넓은 정의를 사용하여 "정신 장애가 있거나, 적대적이거나,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 프리드만 박사가 옳다면 하위계급은 2백만 명 정도이며, 모랠리스 박사가 옳다면 1,500만-1,800만 명 정도가

된다. 인력개발연구센터에서는 일반적으로 9백만 명 정도가 정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중 어느 정도가 장기 빈민과는 달리 일탈적 행동을 보이는지는 연구자에 따라 각각 다르게 추정된다.

이와 같이 하위계급의 규모는 그 개념을 정의하는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위와는 다른 하나의 개념 정의는 하위계급을 '신체적 장애가 없으면서 지속적으로 빈곤한 집단'으로 보는데, 이 정의에 따르면 1980년대 중반 미국에는 약 800만 명의 하위계급이 존재한다고 한다. 또 다른 하나의 정의는 하위계급을 '대도시의 빈민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규정하는데, 이 정의에 따를 것 같으면 하위계급의 숫자는 훨씬 작아진다. 1980년 현재 빈곤율이 40%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숫자는 240만 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순전히 개인의 행동양식에 기초하여 하위계급을 정의하는 연구도 있다. 예를 들어 都市硏究所(The Urban Institute)는 '福祉 依存 상태가 심하고, 女性家長 비율이 높으며, 남성 실업률이 높고, 고등학교 중퇴율이 높은 지역의 거주자'를 하위계급으로 정의하여 그 규모를 추계하였는데, 이 정의에 따르면 하위계급은 약 250만 명에 불과하지만 그 증가 속도는 대단히 빠르다는 결과를 얻었다. 1970-1980년 사이에 미국의 빈곤인구는 8%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같은 기간에 하위계급의 크기는 75만 명에서 250만 명으로 무려 230% 증가하였다는 것이다[Sawhill(1988a, p. 29)].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들이 하위계급의 규모를 추계해왔는데, 하위계급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규모는 천차만별이다. 작게는 1백만 명 정도에서 크게는 4천만 명에 이를 정도로 편차가 커서 과연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이는 하위계급의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못한 탓이다. 앞으로 하위계급의 개념 정의에 관한 학계의 대략적인 합의라도 이루어진 연후라야 하위계급의 규모 추정도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 두 개의 추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어느 추계를 따르든 대체로는 하위계급의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의 '低所得地域'(주민의 40% 이상이 공식 빈민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전체 빈민의 7%밖에 되지 않는다[Sawhill(1988b, p. 1109)]. 이들 집단의 70%는 흑인이지만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흑인은 전체 흑인의 5%밖에 안되며, 흑인빈민의 15%밖에 안된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빈곤의 대부분은 — 흑인 빈곤을 포함하여 — 도시 게토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의 빈곤과 하위계급은 상당히 정체불명의 성격이 강

〈表 1〉 下位階級 規模의 推定

연구자	하위계급의 정의	규모(백만명)	대상 지역	자료	연도
Bane and Jargowsky	도시 극빈지역 거주 빈민 전체	1.8	100개 도시	인구 센서스	1979
Gottschalk and Danziger	a. 도시 극빈지역 거주 빈민 전체	3.7	100개 도시	인구 센서스	1979
	b. 도시 극빈지역 거주 AFDC 수혜자	< 1.0			1984
Nathan	빈곤지역 거주 흑인 및 남미계	4.1	100개 도시	인구 센서스	1979
Littman	a. 빈곤지역 거주자 전체	41.1	전국	CPS	1980
	b. 빈곤지역 거주 빈민 전체	11.6			
Ricketts and Sawhill	a. 극빈지역 거주자 전체	5.6	전국	Census	1979
	b. '하위계급 지역' 거주 빈민 전체	1.1			
Hughes	a. '궁핍지역' 거주자 전체	3.2	8개 SMSAs	Census	1979
	b. '하위계급 지역' 거주자 전체	0.9			
Adams Duncan, and Rodgers	가장이 네 가지 하위계급의 특징을 보여주는 가구에 속하는 장기 빈민	0.8	56개 도시	PSID	1980
Reischauer	a. 상기 저소득, 가장이 낮은 교육 수준이며 1년 중 3/4 이하 일함.	8.1	전국	PSID	1982
	b. 특징a + 가장이 소수민족이며 탈기능적 태도, 반사회적 행동, 이런 특징이 강한 지역 거주	1.4			
Kasarda	복합적 사회문제를 가진 가구	5.3	95개 도시	PUMS	1980
O'Hare and White	복합적 사회문제를 가진 성인	3.0	전국	CPS	1990

資料: Mincy(1994).

하다.

한편 하층계급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하위계급은 주로 뉴욕, 시카고 등 북동부, 중서부의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흑인 또는 히스패닉이다. 성인의 3/5이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았고, 상당수는 정규적인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장의 비율이 3/5에 달하고, 1/3 정도의 가구가 공공부조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다.

실제로 하위계급의 정체를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어떻게 보면 하위계급은 대부분 흑인인 것처럼 보이지만(59%) 실제로 전체 흑인 중 하위계급은 6%에 불과하고, 또 어떻게 보면 빈민 밀집지역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들 지역에 사는 빈민(107만 명)은 전국 빈민(2600만 명)의 4%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하위계급은 상당한 정체불명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어느 지역, 어느 집단만을 대상으로 쉽게 정책

〈表 2〉 1980年 美國 下位階級의 規模와 構成(단위 천명)

특 징	거주지 하위계급지역	미국전역
전체 인구	2,484	226,546
빈곤 인구	1,066	26,072
비율(%)		
도시거주	99	77
북동	36	25
중북부	27	24
남부	26	30
서부	11	21
백인	28	82
흑인	59	12
히스패닉	20	3
어린이(19세 이하)	34	30
등학교 이하 학력 소지자	63	31
여성가장, 어린이 있는 가구	60	19
등학교 중퇴자, 16-19세	36	13
정규 일자리가 없는 성인남자	56	31
공공부조 대상가구	34	8
여성/남성 비율	1.2 : 1	1.05 : 1

資料 Sawhill(1988a, p. 29).

을 세우기 어려운 면이 있다.

5. 下位階級의 擴大 傾向?

5.1. 白人 下位階級?

1991년 현재 흑인여성이 출산하는 아기의 68%가 사생아이며, 이 비율이 대도시의 빈민촌에서는 무려 80%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백인의 사생아 문제 역시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다. 백인 출산 중 22%가 사생아로서 이 문제는 아직은 흑인만큼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이 비율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우려할 만하다. 백인의 사생아 출산 비율은 원래 대학졸업자의 경우 3%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이것이 6%로 높아졌고, 고졸 이하는 35%에서 48%로 상승하였다. 이런 숫자에 근거해서 머레이는 백인 하위계급이 등장하고 있다고 해석한다[Murray(1993)].

백인 하위계급의 대부분은 유럽계 미국인으로서 이들의 학교 중퇴, 범죄, 마약 복용 문

제가 최근 심각히 대두하고 있다는 것이 머레이의 주장이다. 머레이는 모든 사회문제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사생아 출산을 들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최근에 와서 결혼에 대한 전통적 윤리관이 붕괴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 출산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높이고, 편모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는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지출이 이런 문제의 원인이라는 머레이의 해석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의 이전지출이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 결과적으로 재혼 비율을 낮춘 것은 사실이지만 이혼과 사생아 출산에 미친 영향은 아주 작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1960-1975년 기간에 이전지출 증가는 여성가장 가구 증가의 15% 밖에 설명해주지 않는다[Bernstein and Garfinkel(1996)]. 더구나 1975년 이후 이전지출은 감소했지만 여성가장 가구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머레이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캐나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은 미국보다 더 많은 정부 지원을 저소득 가정(여성가장 가구를 포함하여)에 제공해주고 있지만 이들 나라의 여성 가장 비율이 미국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은 미국의 복지정책이 여성 가장 증가의 원인이라는 머레이의 해석이 무리임을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된다. 요컨대 미국 정부가 복지지출을 줄인다 하더라도 여성 가장의 비율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5.2. 다른 나라의 下位階級

하위계급은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럽 몇몇 나라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의 갤럽은 1994-1995년에 걸쳐 사회문제에 대한 일련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는 다음과 같은 문항이었다.

> 현재 영국에서 '하위계급' — 대부분 시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업도 기술도 없고, 남은 인생을 거의 사회와 격리된 채 보내야 할 사람들 — 이 성장하고 있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에 하위계급이 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5%가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거의 50%의 응답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크게 걱정한다고 말하였다. 10년 전에는 빈곤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대답한 사람이 66%였는데, 이번의 조사에서는 70%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다수가 현재의 경제상태와 하위계급의 존재 때문에 발생하는 범죄와 사회적 붕괴 현상을 우려한다고 대답하였다[Marris(1996, p. 8)].

미국의 찰스 머레이는 이런 조사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영국의 하위계급 증가에 대해 경종을 울린 바 있다[Murray(1990)]. 머레이의 정의에 의하면 하위계급은 "社會의 主流에 참여하지 못하고 만성적으로 벗어나 있으면서 직접적으로는 사회복지의 혜택으로, 간접적으로는 범죄를 통해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들은 비정규적인 직업을 가지며, 사회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녀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머레이에 의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에도 하위계급이 존재하는데, 다만 두 나라에 차이가 있다면 그 출현 시기가 영국이 좀 뒤늦다는 것뿐이다. 그는 미국에서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를 통해 하위계급의 문제가 심각히 대두하기 시작하였다고 본다. 그 뒤 빈곤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해체 현상 — 마약중독, 범죄, 사생아, 무주택, 학교 중퇴, 실업 — 이 전개된 결과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하위계급이 무시할 수 없는 문제로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머레이는 영국의 하위계급은 미국보다는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역기능적인 면이 덜하다고 본다. 그러나 영국의 하위계급은 그 규모가 미국보다 작기는 하지만 그 증가 속도가 워낙 급속하므로 앞날을 장담하기 어렵다. 머레이는 영국의 하위계급이 앞으로 10년 내에 미국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머레이는 영국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에 관심을 집중한다. 첫째, 사생아의 증가, 둘째, 범죄의 증가, 셋째, 실업의 증가이다.

2차 대전후 영국의 사생아 출산율의 변동은 대체로 3단계를 거쳐 왔다. 2차 대전 직후에서 1960년까지는 사생아 출산율이 매우 낮았고, 그 변동 추세도 약간 하락하는 편이었다. 1960-1978년의 시기에 와서 이 비율은 상승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국제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리하여 1979년까지만 해도 영국의 사생아 출생률은 서구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10.6%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런데 1982년에 이르러 이 비율은 갑자기 14.1%로 상승하였고, 그 후 1985년에 18.9%, 1988년에 25.6%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임으로써 거의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한편 범죄를 보면 잉글랜드나 웨일즈가 미국보다 높은 財産犯罪率(property crime rate)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2) 강도 사건은 두 나라에서 유사하게 정의되는데, 영국에서 1988년 발생한 강도 사건은 100,000명당 1,623명일 때 미국은 1,309명이었다. 다른 절도 사건은 두 나라가 비슷하지만 자동차만 본다면 영국에서는 미국보다 자동차 도난

(2) 단, 영국과 미국에서의 재산범죄의 정의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난다. 다만 강력범죄는 미국보다 영국에서 훨씬 더 적게 발생한다. 한편 1988년 영국에서는 624건의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같은 해 미국에서는 무려 20,675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하위계급의 개념 정의상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젊고, 건강한 저소득층의 남자가 일자리를 갖지 않고 빈둥거리며 논다는 것인데, 영국에서도 최근 이런 현상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노동력 참가율의 하락은 영국 하위계급의 성장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공식 통계는 '雇傭되지 않은 사람'과 '無能力者'를 구분하고 있는데, 1981년의 조사에 의하면, 농촌보다도 도시의 슬럼가에서 일을 하지 않거나 일을 하려 하지 않는 노동 인구가 더 많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요컨대 영국의 하위계급은 아직은 미국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만약 영국에서 범죄율과 사생아 출산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안정적이 된다면, 영국은 지속적으로 하위계급을 가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대로 이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 간다면 10년 이내에 미국을 추월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머레이는 전망하고 있다.

6. 下位階級 硏究의 進展

한편 1980년대 이후의 하위계급 연구상황은 대체로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첫째, 文化決定論, 둘째, 構造主義, 셋째, 記述 民族學的 硏究(ethnographic perspective)이다[Marks(1991)]. 물론 연구 방향은 연구자의 이데올로기적 입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파는 이 문제에 문화적으로 접근하여 미국인이 전통적으로 유지해온 노동윤리에 충실하지 않은 흑인 빈민의 산물이 하위계급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고, 좌파에서는 사회의 탈공업화가 진전된 결과 더 이상 비숙련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제구조로의 변화가 가져온 결과라고 본다. 그럼 아래에서는 이런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6.1. 文化決定論(cultural determinism)

문화결정론자들은 하위계급의 문제를 그들의 잘못된 태도와 가치관에서 찾고, 궁극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스스로 빈민이 된다고 주장한다. 문화결정론은 1960년대에 나온 루이스(Oscar Lewis)의 貧困文化(culture of poverty)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 루이스는 남미의 빈곤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생활하면서 얻은 관찰을 토대로 하여 빈곤문화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루이스에 의하면 빈곤문화는 "階層化되고 고도로 個人化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민들이

처한 限界的 위치에 대한 적응이자 반응"〔Lewis(1968)〕이다. 그런데 이런 빈곤문화가 일단 형성되고 나면 그것은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세대간으로 이전되어 영속화는 경향이 생긴다. 빈민가의 어린이가 6-7세 무렵이 되면 벌써 빈곤문화의 기본적 가치관과 태도를 흡수하므로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주위 조건이 변하거나 기회가 생기더라도 이를 충분히 이용할 만한 심리적 태도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루이스는 그 자신 상당히 진보적인 학자였고, 사회의 구조변동이 빈민의 문화적 특성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으나 그의 빈곤문화론을 받아들인 보수적 학자들은 오직 문화적 전통, 가족의 역사와 개인의 성격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만 관심을 집중하였던 것이다.

이들 보수적 학자들은 하위계급 문제의 근원을 미국의 주요 사회제도(가족, 학교, 종교)가 붕괴한 데서 찾고 있다. 이에 속하는 대표적인 논객으로는 위에서 본 찰스 머레이를 들 수 있다. 라우리(G. Loury)는 대도시의 도심에 사는 사람들의 행동과 가치관이 장기적으로 그들의 의존적인 태도를 낳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윌슨(W.J. Wilson)은 문화결정론자가 아니며, 貧困文化 논의를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겟토(getto)지역에서 사회적 병리현상이 급증해왔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또한 강조하고 있다.

문화결정론자들은 미국의 복지제도가 하위계급을 계속 유지시키는 주된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Murray(1984), Gilder(1981)〕. 따라서 이들에 의하면 하위계급 문제의 치유책 역시 아주 단순하다. 즉, 복지제도를 개혁해서 하위계급이 더 이상 복지에 의존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하위계급의 뿌리를 복지제도에 연결시키는 것은 상당히 보편화된 설명이기는 하나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떤 논자들은 하위계급의 뿌리를 남부의 농촌에서 찾거나 1세기 전 남부의 分益農(sharecroppers)에서 찾기도 한다. 사실 남부의 농촌에서 북부 도시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데서 빈곤의 원인을 찾는 가설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이것을 '목화밭의 맥주깡통' 가설(beer can in the cotton patch thesis)이라고 한다〔Marks(1991, p. 451)〕. 하우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골에서는 빈 맥주깡통을 들판에 던져버려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도시에서 깡통을 아무 데나 던지면 환경, 보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데에서 빈곤의 원인을 찾는 것이 이 가설의 내용이다.

문화적 설명 중에는 빈민들이 일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으며〔Mead(1986, 1992)〕, 이들은 쉽게 범죄와 연계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Auletta(1982)〕. 그러나 어쨌든 하위계급은 주로 흑인의 문제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이들 문화결정론자들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런데 문화결정론의 가장 큰 논리적 약점은 사람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사회구조의 중요성을 무시한다는 점과 순환논법에 빠지기 쉽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하위계급의 행동으로부터 이들의 문화적 가치관을 유추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유추된 가치관을 갖고 다시 이들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일종의 순환논법이라는 것이다.

6.2. 構造主義(structuralism)

문화결정론자들은 개인의 생활 스타일을 강조하는 데 반해 구조주의자들은 잘못된 경제구조가 가족구조의 붕괴, 나쁜 태도, 복지 의존 등을 낳는다고 본다. 이것은 구조냐 문화냐 하는 사회학의 해묵은 논쟁을 연상시킨다. 하위계급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조주의자들은 '새로운 産業秩序'(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이동)를 지적한다. 이들은 빈곤문제는 결국 일자리 부족에 있다고 보는 데에서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왜 일자리가 부족한가 하는 문제의 근원에 대한 설명은 다양하다.

6.2.1. 分斷勞動市場論

분단 노동시장론에 의하면 노동시장은 단일시장으로 성립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복수의 시장으로 존재하며, 흑인이나 교육수준이 낮은 노동자들은 2차 노동시장에 소속하는 것으로 본다. 즉, 2차 노동시장은 하위계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2.2. 일자리 不一致(job mismatch) 假說

좋은 일자리는 교외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고, 시내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사람과 일자리 사이에 지역적 불일치가 있다는 가설이다. 그 뿐 아니라 시내에서 주어지는 일자리는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낮은 임금과 열악한 조건을 하위계급이 과연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Kasarda(1989)].

6.2.3. 美國經濟의 脫工業化

미국에서 전통적인 제조업이 쇠퇴하고 해외로 생산기지가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는 종래의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가 점차 사라지고, 저임금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그것을 대체하고 있다. 그런데 그나마 새로 생긴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차지해버리기 때문에 미국 저소득층의 처지는 더욱 나빠진다고 본다.

한편 이들 구조주의자들은 '文化'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 강하게 반박한다. 구조주의자들은 문화결정론자와는 달리 미국의 복지제도가 가족구조나 노동의욕에 뚜렷한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은 아니며, 또 복지지출이 반드시 복지 의존 현상을 낳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문화결정론자들은 흑인의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출산율이 높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 대해 에덜만은 실제로 미국에서 10대 출산의 67%는 백인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반박하고 있다[Edelman(1987)].

그러나 구조주의자들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흔히 이들 사이에서도 의견의 불일치가 보인다. 윌슨(W.J. Wilson)은 인종적 불평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바카-진(Baca-Zinn)은 거시경제구조를 강조한다. 또 용어상의 문제로서 구조주의자들은 상이한 문제를 가진 상이한 사람들을 한데 묶어 하위계급이란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6.3. 記述 民族學的 硏究(ethnography)

일단의 학자들은 기존의 분석방법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실제적 측면을 하위계급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연구하는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앤더슨(E. Anderson)은 시카고와 필라델피아의 흑인 남성을 조사한 결과 이들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공공부조가 주된 소득원이 되며, 이런 상황에서 아기를 갖는 것과 섹스가 돈을 버는 데 이용된다는 것을 밝혔다. 또 존스톤(John Johnstone)은 부유한 이웃에 가까이 살고 있는 10대 빈민은 빈민촌에서 살고 있는 10대보다 강력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설리반(M. Sullivan)은 하위계급은 임신을 했을 때 낙태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다고 결혼이나 동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7. 맺는 말과 示唆點

지금까지 하위계급을 둘러싼 논쟁은 한편으로는 경제구조를 중시하는 구조주의와 다른 한편으로는 행동을 중시하는 행태주의·문화라고 하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양쪽의 주장은 각각 일리가 있어서 반드시 어느 한 쪽이 옳고 다른 쪽은 전적으로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연구가 진전하기 위해서는 '구조'와 '주체' 사이의 개념적 연계를 맺는 작업이 대단히 긴요할 것이다. 하위계급 논쟁의 진정한 진전은 '문화냐 구조냐?'라는 제한된 영역을 넘어서 이론화될 때 비로소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들은 도시 빈민들이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빈민의 곤궁은 경제 전체의 변동과정에서 오는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빈민들의 문화 및 행태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되, 너무 특수 지역적인 조건에 논쟁을 한정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위계급의 개념과 연구는 주로 미국에서 나왔지만 점차 다른 나라로 퍼지고 있어서 앞으로 많은 나라에서 연구가 진행될 것 같다. 특히 자본이동의 자유화와 경제의 세계화 추

세와 더불어 여러 나라에서 빈부격차의 심화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급속한 구조조정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낙오자 집단의 등장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Martin and Schumann(1996), Chossudovsky(1997) 참조].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하위계급에 관한 논의를 찾아 볼 수 없었고, 그 동안의 장기적 경제성장 과정에서 빈곤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사실 지난 30년을 놓고 볼 때 빈곤 감소란 측면에서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나은 성과를 거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 한국의 빈민은 그 행동양식에서 미국의 하위계급과 전혀 다른 성실함과 건전성을 견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빈민들은 일자리만 있으면 열심히 일할 태세가 되어 있고, 마약이나 범죄와 같은 것은 빈민촌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들은 아마 평균적 한국인보다 더 건전한 생활양식을 갖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1997년말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급작스런 경제위기 상황을 맞고 있고, 위기 극복을 위해 급속한 구조조정과 긴축정책을 강요당하고 있는 바 그 과정에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실업자 수는 공식 통계에 의하면 170만 명인데, 앞으로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면 실업자 수는 200만 명에 도달할지도 모른다. 한국의 실업자 수는 오래 동안 50만 명 수준(실업률로는 2-3%)을 유지해왔으나 이제 한국도 대량실업이 장기간 계속되는 상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 나라도 앞으로 유럽과 같이 만성적 대량 실업 시대를 맞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김대중정부가 추구하는 경제 모델이 유럽식의 복지국가 모델이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이 아니라 영미형의 시장 중심적 모델임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도 앞으로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사회적 통합이 와해되어 미국의 하위계급과 비슷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현재 미국은 최강의 경제력과 유례없는 장기 호황으로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고 있으나 실제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하위계급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막연히 영미형 모델의 장점만을 보고 그 모델을 追從했을 때 미국과 영국이 겪고 있는 불행을 한국도 겪을 날이 머지않아 올 가능성이 높으며, 그런 점에서 미국의 하위계급 논쟁은 우리에게 더 이상 먼 산의 불이 아닐지 모른다.

慶北大學校 經濟通商學部 敎授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
전화: (053)950-5412

팩시· (053)950-5407

參 考 文 獻

Auletta, Ken(1982): *The Underclass*, New York, Random House.

Bernstein, Jared, and Irwin Garfinkel(1996): "Welfare Reform: Fixing the System inside and out," *Reclaiming Prosperity: A Blueprint for Progressive Economic Reform*, New York, Sharpe.

Chossudovsky, Michel(1997): *The Globalization of Poverty*, Third World Network; 이대훈 역(1998), 『빈곤의 세계화』, 당대.

Danziger, Sheldon, and Peter Gottschalk(1987): "Earnings Inequality, the Spatial Concentration of Poverty, and the Underclass,"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211-215.

Devine, Joel A., and James D. Wright(eds.)(1993): *The Greatest of Evils: Urban Poverty and the American Underclass*, New York, Aldine de Gruyter.

Edelman, M.(1987): *Families in Peril: An Agenda for Social Chang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Ellwood, David T., and Jonathan Crane(1990): "Family Change among Black American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4, 4,** 65-84.

Ellwood, David T., and Lawrence H. Summers(1986): "Poverty in America: Is Welfare the Answer or the Problem?," in Sheldon H. Danziger and Daniel H. Weinberg(eds), *Fighting Poverty: What Works and What Does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78-105.

Emory, Burton, E.(1993): *The Poverty Debate*, Greenwood.

Gans, Herbert J.(1990): "Deconstructing the Underclass: The Term's Dangers as a Planning Concept,"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56, 3,** Summer.

_____(1995): *The War Against the Poor: The Underclass and Antipoverty Policy*, New York, Basic Books.

Gilder, George(1981): *Wealth and Poverty*, New York, Basic Books.

Haitsma, Martha van(1989): "A Contextual Definition of the Underclass," *Focus*, **12, 1,** Spring-Summer, 27-42.

Jencks, Christopher(1991): "Is the American Underclass Growing?," in C. Jencks and Paul E.

Peterson(eds), *The Urban Underclas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_____(1993): *Rethinking Social Policy: Race, Poverty, and the Underclass*, New York, Harper Perennial.

Kasarda, John D.(1989): "Urban Industrial Transition and the Underclass,"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January.

Katz, Michael B.(1993): "Reframing the 'Underclass' Debate," in Michael B. Katz(ed.), *The Underclass Debate: Views from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_____(1995): *Improving Poor People: The Welfare State, The 'Underclass,' and Urban Schools as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Kelso, William A.(1994): *Poverty and the Underclass: Changing Perceptions of the Poor in America*,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Kirschenman, J., and K. M. Neckerman(1991): "We' d Love to Hire Them, But ……: The Meaning of Race for Employers," in C. Jencks and Paul E. Peterson(eds.), *The Urban Underclass*,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Lawson, Bill E.(1992): *The Underclass Question*,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Lewis, Oscar(1968): "The Culture of Poverty," in Daniel P. Moynihan(ed.), *On Understanding Poverty: Perspectives from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Basic Books, 187-200.

Littman, Mark S.(1991): "Poverty Areas and the 'Underclass' : Untangling the Web," *Monthly Labor Review*, March, 19-32.

Mann, Kirk(1994): "Watching the Defectives: Observers of the Underclass in the USA, Britain, and Australia," *Critical Social Policy*, **41,** Autumn, 79-99.

Marks, Carole(1991): "The Urban Underclass," *Annual Review of Sociology*, JAI.

Marris, Robin(1996): *How to Save the Underclass*, New York, St. Martin' s Press.

Martin, Hans-Peter, and Harald Schumann(1996): *Die Globalisierungsfalle*, Hamburg, Rowohlt Verlag; 강수돌 역(1997), 『세계화의 덫』, 영림카디널.

Massey, Douglas S.(1994): "America' s Apartheid and the Urban Underclass," *Social Service Review*, December. 471-487.

Mead, Lawrence M.(1986): *Beyond Entitlement: The Social Obligations of Citizenship*, New York, Free Press.

(1992): *The New Politics of Poverty: The Nonworking Poor in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Mills, Edwin S., and Luan S. Lubuele(1997): "Inner Citi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5**, June, 727-756.

Mincy, Ronald B.(1994): "The Underclass: Concept, Controversy, and Evidence," in Sheldon H. Danziger et al(eds.), *Confronting Poverty: Prescriptions for Chang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Murray, Charles(1984): *The Losing Ground*, Basic Books.

_____(1990): "The British Underclass," *Public Interest*, **99**, Spring.

_____(1993): "The Coming White Underclass," *Wall Street Journal*, 1993. 10. 29.

Osterman, Paul(1991): "Gains from Growth?: The Impact of Full Employment on Poverty in Boston," in C. Jencks and Paul E. Peterson(eds), *The Urban Underclas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etersen, Carol Dawn(1992): "Can JOBS Help the Underclass Break the Cycle of Poverty?," *Journal of Economic Issues*, **26, 1**.

Peterson, Paul E.(1991): "The Urban Underclass and the Poverty Paradox," in C. Jencks and Paul E. Peterson(eds.), *The Urban Underclas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Rogers, Ann(1990): "Is There a New Underclass?," *International Socialism*, Autumn, 65-87.

Sawhill, Isabel V.(1988a): "What about America's Underclass?" *Challenge*, May-June, 27-36.

_____(1988b): "Poverty in the U.S.: Why Is It So Persisten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6, 3**, September, 1073-1119.

The Chicago Tribune(1986): *The American Millstone: An Examination of the Nation's Permanent Underclass*, Chicago, Contemporary Books.

Wilson, James Q.(1992): "Redefining Equality: The Liberalism of Mickey Kaus," *Public Interest*, **109**, Fall, 101-108.

Wilson, William Julius(1978): *The Declining Significance of Ra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_____(1985): "Cycles of Deprivation and the Underclass Debate," *Social Service Review*, December, 541-559.

_____(1987): *The Truly Disadvantaged: The Inner City, the Underclass, and Public Poli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_____ (1993): "The Underclass: Issues, Perspectives, and Public Policy," in William Julius Wilson(ed.), *The Ghetto Underclass: Social Science Perspectives*, Sage.

Zelley, E. Walton, Jr.(1987): "Is the 'Underclass' Really a Class?," *Journal of Sociology & Social Welfare*, 75-85.